사회계열 교강사 문제 합의

학사행정 학생참여 요구, 부총장실 점거도

학교측과 학생측의 의견차이로 난항이 거듭됐던 교육과정심의원회(이하 교심위)개설 사회계열과목 강사선임 문제가 5일간의 농성 끝에 일단락 됐다.

교심위는 개강이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오던 사회계열 과목 강사추천문제가 학교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1일부터 부총장실 점거에 들어 갔었다.

교심위측은 점거에 들어간 이유를 '단지 사회계열 과목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처리과정상 학생의 올바른 학사행정 참여가 보장되어있지않아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이하 학자추)와의 전반적 논의속에서 학생의 올바른 참여를 위해 점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심위는 지난 1일 부총장실 점거후 이틀간 단위교양사업의 일환으로 과별로 하루 56개 학과 방문 분임토의 속에서 방법을 도출시키려 하였으나 학교측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3일째부터 단식에 돌입했었다. 그러나 단식에 돌입한지 이틀째인 지난 4일 학교측과 면담이 이루어져 합의를 보게돼 지난 5일 점거를 풀게 되었다.

학교측에서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실장 등이 참석하고 학생측에서는 학자추위원장 학자추사무국장및 교심위장, 부위장, 교심위원등이 이날 면담에 참석하였으며 이날 면담에서 학생측은 강사선임및 교수채용시 학생참여, 교양학부 신설및 교양강의동 건설, 강의평가제의 전면실시를 요구했다. 또한 학생측은 위 의사실들이 작년사업과정에서 문서로작성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불인정으로 이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히고, 교수협의회와의 만남을 요구했었다. 이에 학교측은 12일까지 교수협의회에서 이를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19일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학생측과 면담을 갖기로 합의했으며, 작년 합의서의 애매한 문구들을 좀더 확실한 문구로 바꾸기로 했다. 한편 가장 큰문제로 대두되었던 사회계열과목의 교강사 문제는 학생측의 의견을 전면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론'의 경우 학생측의 의견대로 할경우 인원부족으로 자동폐강 됨에 따라 기존의 학교측 요구안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외국어대학 열람실 이전

수원캠퍼스 외국어대학은 지난 11일 현재 여러곳에 분산되어있던 열람실을 모두 서쪽 원형강의실 1층으로 이전했다. 현재의 열람실은 통행이 많은 직선형 강의실등에 위치해 정숙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 요소로 지적되어 왔었다. 한편 이번 열람실이 이전함에 따라 서쪽원형강의실 1층에 위치하고 있던 여학생 휴게실은 2층 236강의실로 이전했다.

조국통일전진대회 문목사 방북기념 일환

'통일운동 탄압분쇄 및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조국통일전진대회'가 지난13일 오후5시 노천극장에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주최로 열렸다.

문익환목사 방북 2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치뤄진 이날 행사에서는 방북의 의의와 성과에 대하여 문익환목사가 기념연설을 했으며 91년 통일운동전망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어 현정권의 통일운동 탄압을 규탄한 자리가 있었으며 '민주화를 위한 유가족 협의회'에서 결의문 낭독도 하였다.

이날 행사에 대해 김용진(무역·4)학추위장은 "89년 문목사 방문이 현재에 있어서 갖는 의미를 재조명해 보며 이후 91년 조국통일을 전망해 보는 것이다"고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고황' 수습국원 모집

고황 편집위원회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습국원을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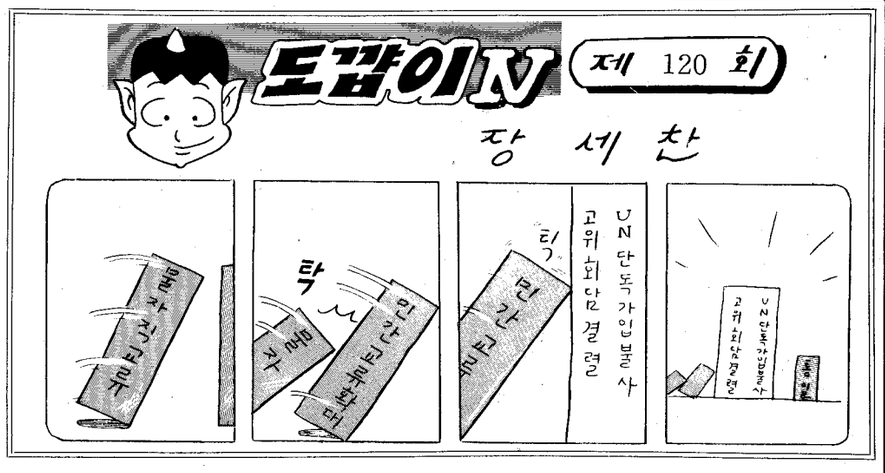
면접및 상식시험을 거쳐 선발하게될 이번 모집에 서울은 한의대 지하2층 교지편집실, 수원은 학생회관 403호 고황편집실에서 각각 신입생을 모집한다.

장학생등록 15. 16일 서울신탁 휘경동지점

서울캠퍼스 경리과는 장학생 등록기간을 15, 16일 양일간으로 발표했다.

장학생들은 등록금고지서, 본인도장, 학생증을 지참 서울신탁은행 휘경동 지점에 등록을 하면 된다.

특히 장학생이면서 등록을 한 학생은 영수증과 학생증을 지참 17일까지 경리과에 제출하면 환불 받을 수 있다.



이진일군 대학대항 육상경기 2관왕
핸드볼·사격부등 각종대회 석권

최근 본교 체육부가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려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핸드볼부의 경우, 지난 3월21일에서 24일까지 성균관대에서 열린 전국대학연맹 핸드볼 대회에 참가 우승을 차지 하였으며 본교 이학면(체육4)군은 이 대회 최우수선수상을 차지했다.

한편 하키부는 3월23일부터 4월9일까지 성남에서열린 대회에서 3위로 입상하였고, 테니스부는 3월19일부터 26일까지 울산에서 열린 전국종별 테니스대회에서 윤소윤·소은정 조가 복식우승을 차지하는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또한 사격부도 태능국제 사격장에서 지난 3월26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20회 체육부장관기 전국 사격대회에서 엄원용(체육3)군이 4관왕에 오르는등의 성적을 올렸다. 또 최근들어 육상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였는데,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4월6,7일 양일간 열린 전국 남여 대항 육상경기에서는 이진일(체육1)군이 8백미터, 1천5백미터 두종목에서 우승 2관왕에 오르기도 하였다.

수원동연 불시검색 의자등 36점 압수전시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는 지난 9일 학생회관내 각 동아리방을 불시검색 도서관등에서 도난당한 의자및 벤취 30여개를 찾아내 이번주까지 학생회관 로비에 전시한다.

이번 검색은 도서관 열람실의 의자가 계속적으로 분실되는데 따른것으로 문학회 '천추'에서 열람실 의자3개, 응원단에서 벤취2개와 학생식당 의자 2개, KADA에서 열람실 의자 9개등 총36개의 분실된 의자를 동아리방에서 발견했다.

임학과 알림지 발간 연1회씩 학술지도

임학과 학생회 알림지 '나무 그리고 우리'가 오는 18일 발간된다.

'나무 그리고 우리'는 한달에 한번씩 학교 동향과 과소식을 중점내용으로 다루게 되며 임학과 편집부는 연1회씩 학술지도 발간할 예정이다.

'전한련' 국가시험 규탄집회
보사부 항의방문등 국가고시 투쟁

제44회 한의사 국가시험 완전정상화를 위한 전국 9개 한의과대학 학생회 연합(이하 전한련) 결의대회가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 노천극장에서 3백여명의 한의대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본교 한의대 풍물패의 공연을 시작으로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전한련의장인 본교 방대건(한의본·2)한의대 학생회장은 "한의학 말살과 의료일원화 조치에서 기인한 이번 한의사 국가시험은 완전무효이며 시급히 국가시험 정상화가 보사부·출제교수·학생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15일 한의사 국가시험 실시 이후 1월16일부터 23일까지 시험문제의 복원및 자료조사를 벌이고 1월25일부터 27일까지 응시생전원 국가시험 무효와 재시험의 실시를 주장하며 본교 한의대에서 1차 철여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1월29일 합격자 발표가 나자 다시 1월31일 부터 2월2일까지 응시생 전원이 2차 철야농성에 들어갔고 2월2일 부터 4일까지 국회 보사분과위를 방문 시험문제 하자부분에 대한 대정부 질의서를 전달키도 하였다. 또한 2월5일에는 원광대 인턴수련의가 병원에서 퇴소하였고 6일에는 전국 5개 한방병원 인턴수련의가 집단퇴소 하기까지 이르렀었다. 한편 전국 5개 한의대 학부모도 비상회의를 개최 학부모 차원의 민원서및 탄원서를 작성키도 하였다. 이는 계속 이어져 각·대학별 졸업식 거부투쟁이 이루어졌고 3월7일에는 전국 한의대교수 9명이 추가시험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비상 대책 위원회는 3월21일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행정소원을 제출하였고 23일에는 서울 고등 법원에 불합격 처분 무효소송을제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주경희 구국투쟁 선포식
제주항쟁 현대적의미 되새겨

'91년 자주경희 구국투쟁선포식'이 지난 3일 오후 1시30분 노천극장에서 3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구호(무역·4) 정경대 학생회장의 사회로 열렸다.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는 4·3제주민중항쟁의 현재적 의미와 기념시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91년 구국투쟁선언문 낭독에서 최성용(법학·4)부총학생회장은 "우루과이라운드 반대투쟁과 팀스피리트 훈련, 한반도 핵지대화 반대등의 반미투쟁을 벌여 나가며 노태우정권의 장기집권 내각제 개헌음모를 분쇄, 민주대연합을 수립하기 위해 투쟁하자"고 밝혔다.

집회를 마치고 학생들은 교문앞으로 진출하여 최루탄을 쏘며 저지하는 경찰에 맞서 1시간여 동안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학자추 신입국원 모집 인원제한 없이 접수

수원캠퍼스 총학생회 산하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가 신입 사무국원을 모집하고 있다.

경희 8천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자주화사업에 관심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수시로 받고있다.

'제5기 용성총련 출범식'
지난 9일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서

용인성남지구 총학생회연합(이하 용성총련) 제5기 출범식이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한국 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개회사, 애국의례, 내빈소개, 4기이임사, 회장단 소개, 용성총련사, 의장단 추대및 인사말, 총노선 선포, 출범선언문선포 등의 식순으로 진행된 이날 출범식은 용성총련산하 9개대학 1천2백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출범식의 사회는 이재표(중문·4) 본교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이 맡았으며 이재표군은 이날 용성총련 제5기 부의장으로 추대되었다.

한편 이날 용성총련 의장으로 추대된 이국형(철학·4)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92, 93년의 승리를 위해 지도역량을 강화하고 각 대학의 역할과 지위를 굳혀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부의장으로 선출된 이재표 본교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조국의 자주화를 회복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의식화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총노선을 살펴보면 각 대학의 역할과 지위를 굳히며, 대중적 지지기반을 넓히고 튼튼히 하기위해 단대 운영위를 강화, 투쟁의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 전투 투쟁조직을 건설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출범식 이후에는 최루탄을 쏘며 저지하는 경찰들과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시위대는 저녁 8시30분경 자진 해산했다.

인복위 근로장학생 선발
매장수익금 환원조치 일환

수원캠퍼스 인권복지위원회는 91학년도 1학기 근로장학생을 선발한다.

복지매장의 수익금 환원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조달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근로장학생 모집 신청기간은 17일까지 이며 신청자는 근로장학금 신청서와 학부모 과세증명서, 등록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합격자는 19일 발표한다.

"벌금은 적당히 처벌은 더욱 가볍게"

◇…"앗! 나의 실수"

'북녘 고을아 남녘고을의 안보를 위협한다면 특공포졸을 보내서라도…'

며칠전 이某 병조판서나리가 말씀하신 '핵탄두'같은 발표를 놓고 항간에 의견이 분분.

이에 윗고을과의 통일과 태평성세를 염원하는 온 나라 백성들이 가만 있을리 없음은 당연한 이치인데….

'실수였다' '본래 뜻이 아니었다'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시는 책임있는 나랏님들!

비록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는 하나 통일열기를 달아오르게 해야할 오늘과 같은 날에 맞은 '찬물 한바가지'는 유독 차갑게만 느껴지는 구려.

◇…양심은 어디에?

얼마전 서천골 獅형들의 얼굴에 '便칠'한 사건이 발생하여 대다수 獅형들이 '고개숙인 男과女'가 되었다는데….

사건의 개요인즉,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간부들이 각 동아리의 방을 조사한 결과, 일부 동아리에서 캠퍼스 곳곳에 있어야 할 벤치와 의자들이 버젓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암체 獅형님들! '수색영장'도 없이 침입한 것을 탓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푯말을 문앞에 매달아 보심이….

'양심과의 거리 1991광년'

◇…옹졸한 空想

요즘 NO나랏님의 비리동업자 자본가 아저씨들은 머리털이 하얗게 쉴정도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내려고 고심하고 있다는데.

임투시기를 앞두고 노조쟁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하기, 의도적 회사부도내기, 일안한다고 무노동무임금과 식사제공도 중단하기등 치사한 방법으로 '노조눌러앉히기 작전'을 자행하신다나.

자본가 아저씨들,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노동자들이 물러서겠습니까? 쓸데없이 머리 싸매다가 머리에 쥐라도 나면 어쩌실려구.

◇…도토리 키재기

페놀의 식수화를 감행한 두산의 배짱엔 윗분네마저 기겁을 하셨는지.

다름아닌 두산전자의 처벌은 아주 가볍게, 벌금도 적당히, 낙동강에 페놀 흐르듯 대충대충 넘기셨다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만민의 눈을 무시한 그 배짱, 어찌 그리 닮은 꼴인지.

동아시아 연구회 회원모집 안내

1. 연구회 목적
동아시아연구회는 21세기 '동북아시아 시대'를 창도하고 준비하는 순수학술연구단체로서 학문적 연구와 인적교류의 확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지역협력과 더 나아가 지역통합을 겨냥하여 주요 동북아 구성국가를 중심으로한 지역연구(Area Study)를 행하며, 동·하계 방학을 이용하여 동북아시아 각 국가를 직접 현지답사하여 실증적 경험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통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회원자격
정회원:경희대학교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자 및 학위취득자
준회원:본회와 뜻을 같이하는 재학생

3. 회원특전:방학기간중 연구대상지역 답사시 최우선적 자격부여

4. 연구회실적:1990.2월 대만답사
1990.7월 일본답사
1991.8월 중국답사 예정

5. 연락처:961-0216(함선미 조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연구회

'91대학 장학생 모집안내
(학군·학사사관)

●모집인원:1학년(○○명), 2학년(○○명)
●지원자격:4년제대학-1학년('69.1.1.~'75.1.1 출생자)
2학년('68.1.1~'74.1.1 출생자)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91.4.1~5.20(학군단 본부)
●구비서류

1차(지원시)	2차(신체검사시)
·지원서(사진첨부)및 서약서 ……각1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
·대학입학 및 성적증명서 ……각1부	·재정보증서, 납세및 임감증명서 ……각1부
	·사진(4×5cm) ……3매

●선발절차
●1차:서류전형(입학및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2차:신체검사
●합격자 발표:'91.8.26
●특 전
●학군 및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 선발
●대학졸업시까지 등록금 지급
●희망 및 전공 학과고려 병과분류 보직 활용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대기업체 우대선발 및 처우)
●문의처:학군단 본부(T. 962-9004, 교내-0087)

제108 학생군사교육단

어학강좌안내

본교 언어교육연구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어학강좌를 실시합니다.

1. 개설과목 및 모집인원
가. 영어회화(초급):아침반, 저녁반 각 15명
나. 영어회화(중급):아침반, 저녁반 각 15명
다. 일본어 특강(초급):아침반 20명
라. 중국어 특강(초급):아침반 20명
마. 러시아어 특강(초급):20명

2. 강의기간 및 시간
가. 기간:1991. 5. 6~6. 28(8주)
나. 시간:아침반(월, 수, 금) 07:30~09:00(90분)
저녁반(월, 수, 금) 18:00~19:30(90분)

3. 수강료:과목당:100,000원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1991. 4. 30 오후5시까지 선착순 마감.
나. 접수처:시청교육원내 언어교육연구원 사무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언어교육연구원(전화 961-0080, 00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언어교육연구원

동서외국어학원

영어회화는 미국인과 직접 접촉하여 의사전달의 습관성을 간파하고 몸짓, 눈짓, 표정등을 읽어 세심한 내적의사를 채취할 수 있어야 한다.
제2기 개강:91.4.29
선착순 등록
경희대 앞 969-0055, 969-1188

취업정보실 이용안내

학생처에서는 졸업후 취업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취업정보실을 개설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1. 취업 및 진로 상담
2. 취업정보 제공
추천 의뢰기업 소개, 최근 채용 공고, 취업 수학 뉴스, 업체별 과거 취업 정보, 자격증 취득정보, 기타 데이타 통신(주) 취업정보 은행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
3. 취업준비 안내
시사상식, 면접시험요령, 이력서 작성법, 자기소개서 작성법, 논문·작문작성법, 적성·인성 검사요령, 취업전문강의 안내 등
4. 취업자료 열람
*위치:서울캠퍼스 학생회관 1층
*기타 자세한 내용은 취업정보실을 방문하거나 서울캠퍼스 학생처 취업담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961-0045~48, 0167)

학 생 처 장